

옛 도청 앞 ‘교통 지형’ 70년만에 바뀐다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폐지되는 서석로의 옛 도청~옛 노동청 구간(120m). 70년동안 광주 도심의 중심 도로 역할을 해온 이 구간은 문화전당 완공에 맞춰 옛 도청 앞 분수대와 함께 5·18 민주광장의 일부로 편입된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석로 옛 도청~옛 노동청 120m 12일 완전 폐지

문화전당 편입 ... 신 서석로·광산길·인쇄길로 우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석로의 옛 도청~옛 노동청 구간 120m 도로가 폐지돼 옛 도청 인근 ‘교통 지형’이 70년만에 완전히 바뀐다. 이 구간은 금남로와 함께 지난 1939년 10월31일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신설돼 광주 도심의 중심 도로 역할을 해왔다. 폐지된 구간은 오는 2014년 문화전당 완공에 맞춰 옛 도청 앞 분수대와 함께 5·18 민주광장에 편입돼 시민들과 만나게 된다.

광주시는 옛 서석로 폐지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연장 330m의 신서석로(전일빌딩~장동로터리), 연장 230m의 광산길(충장로 입구~인쇄길), 연장 240m의 인쇄길(광산길~동구청 사거리) 등 3개 우회노선 확장공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점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서석로에서 제봉로로 진행되는 차량은 광산로나 인쇄로로 우회해 제봉로를 이용하면 되고,

서석로 일부 폐지에 따른 우회노선도



※일방통행이던 광산길·인쇄길 구간이 쌍방향통행으로 변경

제봉로에서 옛 도청 분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인쇄길, 광산길을 경유하면 된다.

또 시는 폐지구간을 지나는 송암 74번과 지원 150번 등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하고, 금남 58번 등 17개 노선은 기존 경로를 유지하면서 확장된 인쇄길로 운행하도록 했다. 분수대 주변광장이 오는 2010년 하반기까지는 개방됨에 따라 진월 07번,

지원 53번, 금남 56번, 금남 57번, 풍암 61번의 노선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2차선 일방도로로 협소했던 광산로, 인쇄로 등이 5차선 도로로 확장됨에 따라 문화전당 주변 교통 흐름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석로는 1939년에야 근대적인 도로로 지정됐으나, 그 이전부터 시민들의 통행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 25m로 폭이 크게 넓어져 광주 중심가를 오가는 차량을 소화해왔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조광철 학예연구사는 “금남로가 끝나는 지점에 도청이 생겼고, 그 앞에 서석로가 놓이게 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좁은 골목길이었던 서석로가 도청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중심도로가 됐고, 이제는 광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점에서 광주의 현대사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옛 도청 앞 분수대 도로도 폐지될 예정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9분
해질 17시 20분

달 뜨는 시간 -1시 -1분
달 지는 시간 12시 33분

겨울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20mm.

광주	흐리고 비	4/9℃
목포	흐리고 비	5/8℃
여수	흐리고 비	7/9℃
완도	흐리고 비	6/9℃
구례	차차흐려져 비	3/8℃
애남	흐리고 비	5/9℃
장흥	흐리고 비	6/9℃
고흥	흐리고 비	6/10℃
순천	흐리고 비	5/9℃
영광	차차흐려져 비	3/9℃
진도	흐리고 비	6/9℃
남원	차차흐려져 비	3/10℃
목포	차차흐려져 비	1/7℃
흑산도	흐리고 비	7/8℃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씨						
최저/최고	6/10	6/13	3/10	3/10	3/9	1/8

“조선대총동창회가 정통성 있다”

장학금 반환소송 승소

광주지법 “적법 승계”

광주지법 제8민사부는 최근 조선대총동창회가 구(舊) 조선대동창회 간부 문도, 하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학금 반환소송에서 7천4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 당사자와 별도로 장학금 모금 주체라며 반환을 청구한 조대동문장학회의 요구는 기각했다.

이 장학금은 1976년부터 당시 조선대동창회가 1983년 3월까지 조성한 장학금으로 문씨 등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됐던 것. 당시 990여만원 이었던 원금은 26년이 지나 현재 7천 400여만원으로 불었다.

재판부는 “지난 1949년 조직된 구 조선대동창회는 1989년 총회소집 및

결의, 정관개정 등을 적법하게 처리해 조선대총동창회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독립당사자)로 장학금 모금 주체라며 재판에 참가한 ‘조대동문장학회’의 요구는 장학회의 실체가 없었 다며 기각했다.

2006년 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조선대동창회’는 현재 조선대총동창회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창회 이름으로 현 대학 경영진에 대한 고소와 고발, 성명발표 등을 해왔다.

신흥수 조선대총동창회장장은 “현재 조선대동창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풍 동창회는 1988년 비리 등으로 퇴출당한 전 재단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사실상 유령단체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교통안전지수 전국 6위

화순군·광산구·여주시 20위권 포함

도로교통공단 평가

우리나라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지수를 평가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시 남구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순군과 광주시 광산구, 여주시 등이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 지수가 높은 20위권에 포함돼 교통 안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전국의 232개 지자체의 교통안전 지수를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는 84.38점(100점 만점)을 기록, 상위 6위에 자리했다. 교통안전 지수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97.82점을 얻은 충남 계룡시로 기록됐으

며, 전국 평균은 71.41점이다.

광주·전남에서 교통안전 지수 상위 10%에 포함된 지자체는 남구(6위)에 이어 화순군(12위 82.66점), 광주시 광산구(16위 81.66점), 여주시(20위 81.06점) 등이다. 반면 하위 10%에 위치한 지자체는 해남군(210위 60.14점), 보성군(226위 53.87점), 영암군(229위 47.59점) 등이다.

교통안전 지수는 지자체별 인구와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중상 이상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사고 심각도, 보행자사망 비율 등을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짜고 달다

어묵 나트륨 함량 전국 평균의 2배·떡볶이 당 함량은 3배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광주시내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묵이나 떡볶이, 붕어빵 등이 지나치게 짜거나 단 것으로 조사됐다. 어묵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전국 평균의 2배에 육박했으며, 떡볶이의 당 함량은 다른 지역보다 최고 3배 이상 많았다.

8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광주지역 학교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 12개 품목 120건에 함유돼 있는 당과 나트륨 함량을 검사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아 ‘영양 불균형’이 심각했다.

나트륨 함량은 어묵 100g 기준으로 광주가 616mg인데 반해 인천 368mg, 대전 395mg 등 전국 평균은 373mg에 불과했다.

당 성분은 떡볶이 100g을 기준으로 광주는 5.8g으로, 인천 1.4g보다 3배 이상, 대전 2.9g보다 2배 높았다. 100g 기준으로 와플의 당 함유량은 20.5g, 붕어빵은 15.4g으로 조사돼 가장 단 길거리 음식으로 꼽혔다.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1인분(400g)과 어묵 1인분(180g)을 간식으로 먹을 경우, 2천49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돼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설정해 놓은 1일 나트륨 섭취 목표량인 2천mg을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붕어빵 3개(150g)를 먹으면 당 20.8g 섭취하게 돼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 일일 권고 수준인 50g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셈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광주의 길거리 음식이 지나치게 짜고 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소년들이 주로 섭취하는 이들 음식은 성인병 등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도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조사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